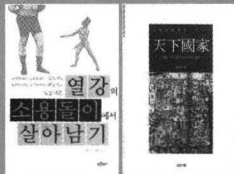


# 후보도서

《열강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박노자·허동현 지음 | 푸른역사 | 332쪽 | 값 12,000원  
박노자 교수와 민족주의적 시민주의자 허동현 교수가 개화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열강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박 교수는 한말 개화파의 오류를 지적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 4강의 실체를 비판하고 반세계화를 부르짖는다. 허 교수는 그러나 개화파의 선택을 높이 사며, 세계 시민의 연대가 제국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길임을 주장한다.

《천하국가》 김한규 지음 | 소나무 | 872쪽 | 값 35,000원  
역사 이래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 중화사상을 둘러싼 역사전쟁의 실체를 파헤치는 한편, 국가공동체와 역사공동체란 이분적 논리로 동아시아 질서를 파악한 책이다. 특히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질서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하는 한편, 초원유목 역사공동체 등 7개 역사공동체를 적시해 눈길을 끈다.



《근대성의 침략과 20세기 한국의 음악》 전지영 | 북코리아 | 316쪽 | 값 15,000원  
이 땅에 유입된 근대와 '근대성'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문화적·정치적으로 어떤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는지를 파헤친다. 특히 트로트와 국악 등의 음악을 통해 민족 내지 민중이란 실체와 '근대화'가 겹고 트는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장국영이 죽었다고?》 김경욱 지음 | 문학과지성 | 304쪽 | 값 10,000원  
표제작 《장국영이 죽었다고?》를 비롯한 9개의 단편을 담은 김경욱의 소설집. 가상세계나 영화, TV 등 대중적인 문화세계에 접속해 새로운 존재의 감각을 체험하고 그 감각적 실존을 통해 일상의 탈출을 꿈꾸는 내용의 작품들이다. 그 중 《장국영이 죽었다고?》는 인터넷 채팅 도중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의 투신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추억하는 플래시몹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는 유명작가입니다》 김연수 지음 | 창비 | 268쪽 | 값 9,500원  
동인문학상 수상작가 김연수의 신작 소설집이다. 독백체의 진술문으로 쓴 《뿌님쉬》, 개화기 지식인의 문체를 응용한 《연애인 것을 깨닫자마자》, 일방적 보고를 위한 서간문으로 쓴 《거짓된 마음의 역사》 등 역사와 생의 굴곡을 다채로운 문체로 짙어낸다. 19세기 조선, 개화기, 한국전쟁 등 역사의 페이지를 마구잡이로 작가는 넘겨대지만, 작가가 완성시킨 소설만큼은 흡입을 때 없이 당시의 풍경을 오롯이 복원해놓고 있다.

《교회에 관한 33가지 유쾌한 상상》 유창주 외 32인 공저 | 기독교연합신문사 | 262쪽 | 값 9,000원  
과연 한국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은? 그런 질문에 답하기라도 하듯, 교회개혁에 뜻을 둔 33명의 필자들이 만약 이런 가정으로 한국교회의 유쾌한 모습을 그려낸 책이다. 약한 자가 행복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예수를 만나며, 21세기형 웰빙교회를 꿈꾸며, 화목하며 세상과 문화로 소통하며, 카페같은 그런 교회가 그려진다.



《우리 근대미술 뒤틀 이야기》 이구열 지음 | 돌베개 | 288쪽 | 값 16,000원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체험한 화가와 미술가, 또 주변으로부터 들은 생생한 미술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다. 본인이 스스로 체험한 우리 근대미술계 이면의 이야기들도 읽을 만 하다. 특히 당대의 분위기를 가늠케 하는 잡지사 신문기사, 170여 컷에 달하는 작가들의 주요작품 등이 실려 있어 자료로서 가치도 크다.

《여행하는 나무》 이미지프레스 기획 | 청어람미디어 | 360쪽 | 값 18,000원  
사진가 네트워크 '이미지프레스'의 작품이다. 디지털 문화에선 느낄 수 없는 영상이미지와 정취를 자아내기 위해 이들은 나름대로 사진을 담는 노력을 거듭해 왔다. 디큐멘터리 사진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좋아하는 한 장의 사진 등 다양한 앵글로 엮어진 책이다.



《이청준 판소리 동화》(전5권) 이청준 지음 | 파랑새어린이 | 100~180쪽 내외 | 값 1~4권 7,500원, 5권 8,000원  
원본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책이다. 알기 쉬운 해설을 붙여 이해를 돕는 한편, 우리 고유의 소리인 판소리를 어린이들이 심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화로 풀어냈다. 춘향가, 흥부가, 놀부가, 수궁가, 옹고집 등 9편의 판소리 이야기 가는 어른들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상대성이론, 그후 100년》 김제완 외 지음 | 궁리 | 314쪽 | 값 10,000원  
100년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상대성이론은 기술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인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책은 1부에서 상대성이론의 현재적 의미와 아인슈타인의 일생, 그리고 상대성이론에 바탕한 새로운 세계관을 언급한다. 2부에선 상대성이론이 철학, 미술, 사진, 문학, 음악, 건축,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본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마광수 지음 | 해냄 | 334쪽 | 값 9,000원  
마광수 교수가 오랜만에 펴낸 자전적 에세이집. 젊은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틈틈이 써둔 글을 모은 이 책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구절을 뒤바꾼 데서부터 마 교수의 아한 기질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성애론과 진정한 자유, 모럴 테러리즘 등에 관한 저자의 분방하면서도 논리 치밀한 언급이 이어진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안병수 지음 | 국립미디어 | 320쪽 | 값 11,000원  
유명 과자회사 간부로 있다 뒤늦게 과자의 폐해를 알게 된 저자가 과오를 솔직히 털어, 실상을 폭로한 책이다. 저자는 각종 화려한 질감이 폭증하게 된 까닭은 급격히 진행된 식생활 변화, 특히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 탓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햄과 소시지, 감, 청량음료 등의 유해성,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을 방대한 자료와 연구결과로 설명한다.

